

로마서 묵상 39
(3/5/2021, 금)

찬양: 370(455)(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8:31-34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31 절).” 이 한 마디 말씀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31 절 -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바로 위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그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사탄의 공격을 당한다고 말씀한다. 벤전 5:8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딤후 3:12-13 -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린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했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고백했다. 딤후 3:11 -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그 이유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음을 언급한다. 32 절 -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사랑이다.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상으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아울러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증거한다(33 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주님은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34 절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

는 예수님 때문이다. 바울은 34 절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바울은 롬 8:26 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는데, 34 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렇다.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다. 그 도움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신 도움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전적인 은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입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도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히 7:25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중보자되심을 선포한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기도만으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롬 8:34 에서의 “간구하시는” 이라는 표현과 히 7:25 에서의 “간구하심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모두 ‘엔팅카노’라는 단어로써, ‘호소하다,’ ‘청원하다,’ ‘중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중보기도의 차원과 함께 더 근본적으로는 중재자와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선포한다.

딤펴전 2:5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일 2:1 -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을 믿는 성도가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아울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며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위협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바라보는가? 두렵고 위축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31 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32 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34 절). 우리는 주님의 중재와 중보기도의 은총을 입고 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며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2.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3. 군부 쿠데타로 인해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 참된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